

[북 스]

어린이 책꽃이

▲로마 어린이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야기로 읽는 고대 어린이들의 생활과 역사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서기 1세기 무렵의 로마를 무대로 당시의 로마 어린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역사자료를 바탕으로 동화적 상상력을 가미해 흥미롭게 그려냈다. <어린이 작가정신·8천500원>

▲한국사 탐험대 7-가족=테마로 보는 우리 역사 시리즈로 탐험이라는 형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난제가 비교적 평등했던 고려시대, 여성차별을 당연하게 여겼던 조선 후기 등 옛날시대의 가족을 만나보는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웅진주니어·9천원>

▲갈릴레이=국내외 인물의 행적을 역사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인물이야기로 종교에 맞선 불손한 과학자 갈릴레이의 일대기를 다뤘다. 자연의 모든 현상을 실험으로 검증해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진정한 과학을 태동시킨 갈릴레이의 삶이 어린이들에게 교훈을 준다. <아이세움·8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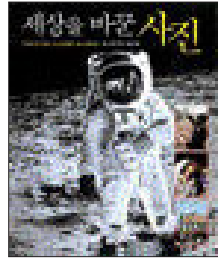
▲교과서 속 우주 101가지 과학이야기=초등학교 교사가 어린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분야별 과학상식 101가지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신체, 동물, 식물, 우주, 지구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구성돼 있다. <길벗스쿨·8천800원>

▲동글고 예쁜 방=영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래동화로 오브에서 도망친 뱀이 사람과 동물의 손길을 내뻐 도망다니는 내용이다. 눈, 코, 입이 들어간 실감나게 그려져 있다. <작은 책방·8천500원>

20세기 역사를 만든 한 컷

세상을 바꾼 사진 페터 슈테판 엠클

1970년 폴란드를 방문한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2차 대전 당시 나치에 맞서 싸운 바르샤바 게토의 유대인을 기리는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사진기자들과 군중들은 수상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라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트렸지만 브란트는 웃은 바다에서 조용히 묵념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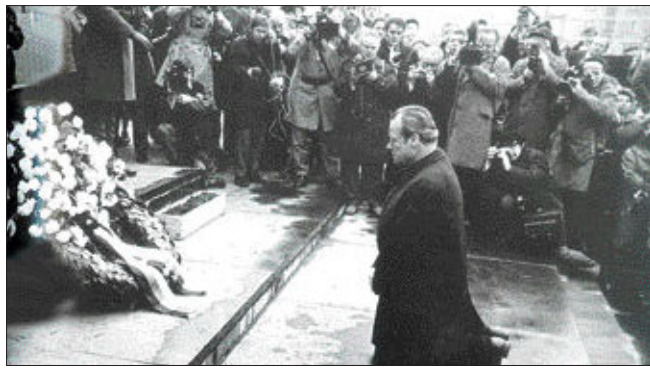
세상을 바꾼 사진

겸손함과 죄의식이 깃든 이 이미지는 결코 '비굴함'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겸손함은 오히려 담당했고 그의 행동을 지켜보는 모든 이에게 나치 시대의 황포를 자인하는 국가적 성숙함과 독일의 새로운 민족의 자존심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진을 보면 해마다 8·15가 되면 반복되는 '진법' 일본의 지도자들이 때오르지 않을 수 없다. 사진 한장은 때론 장문의 글이나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아낸다. 강렬한 이미지의 사진은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회 변화를 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 '20세기 사진의 아이콘' 등을 펴낸 페터 슈테판이 엮은 '세상을 바꾼 사진'은 20세기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한 사진 85장을 통해 격동의 100년을 돌아본 책이다. 저자는 폴리처상을 수상하거나 '타임' '뉴욕타임즈' '라이프' 등 유명 잡지의 표지를 장식한 사진의 촬영 당시 상황과 사진의 역사·정치·문화적 의의 등까지 함께 담았다.

책에는 천재지변, 혁명, 기술 발전, 현실고발, 유적발굴과 보존, 평화유지, 환경보존, 인류애, 인종차별 등 다양한 사건들을 포착한 사진들이 실려 있다. 라이트 형제의 인류 역사상 최초의 비행 시범 모습(1909),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를 결정 지은 노르망디 상륙작전(1944),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말로 미국 내 인종 문제의 부당함을 호소한 마틴루터 킹의 린컨 기념관 앞 광장연설 (1963), 베트남의 참상을 한 눈에 보여주는 즉결처형 장면(1968) 등은 모두 역사의 도화선 물줄기를 바꾼 현장들이다. 시대의 아이콘이 된 인물 사진도 인상적이다. '새로운 메시아의 초상'으로 불린 체게바라, 요양한 포츠로 바람에 날리는 차마폭을 잡고 있는 마릴린 먼로(1954), 20세기 책상 심볼 엘비스 프레슬리(1960)의 모습, '세기의 결혼'으로 불리는 다이애나와 찰스 왕세자의 결혼식(1981) 등을 포착한 사진을 만날 수 있다. 미국 공군이 찍은 '한국전쟁'(1951)의 모습도 85장 사진 중 하나다. <에담·3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라이트 형제의 비행 시범 모습



바르샤바 게토의 유대인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브란트 총리



다이애나와 찰스왕세자의 결혼식 장면

노르망디 상륙작전·마릴린 먼로 모습 등

85장 사진 통해 격동의 100년 돌아보기

잘못된 역사용어 되짚어보기

역사용어 바로쓰기 역사비평사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에는 생각과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래서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역사용어 바로쓰기'는 지금까지 별 거부감없이 사용돼온 역사용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잘못 쓰이거나 주체에 따라 달리 쓰이는 40개의 역사용어(또는 용어군)를 35명의 전문가가 재검토했다. 한국시대에는 가야를 포함해 '사국시대'여야 하고(김태식)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은 공식명칭이 아니므로 제대로 된 용어가 필요하다고(이상찬, 이태진) 주장한다. 책은 계간 '역사비평' 2005년 겨울호부터 지난해 여름호까지 이어진 동명의 특집을 엮은 것이다. <역사비평사·1만2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조선의 재산분배 아들·딸 차별 없었다

조선의 재산상속 풍경 이기담 지음

현대의 남성들은 처가살이를 부끄러운 일로 여긴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 역사소설가 이기담씨가 쓴 '조선의 재산상속 풍경'은 '위대한 유학자 퇴계, 집필제도 처가 덕을 보았다!'는 부제가 말해주듯 여성의 평등한 재산권 행사가 특별하지 않게 여겨졌던 조선의 색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를 위해 조선의 '분재기(分財記)'를 연구했다. 분재기는 개인의 소유권 증빙자료로 '재산을 나누는 기록'이다. 저자는 분재기 속에 혼인한 딸에게도 장자와 똑같이, 어미없는 외손에게도 장손과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던 옛 사람들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말한다. <김영사·9천9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바턴 빅스의 '투자전쟁'

주어, 지난 여름은 정말 더웠습니다. 저는 '투자전쟁'(바턴 빅스 지음·휴먼앤북스 펴냄)을 동네 산그늘에서 읽으며 여름을 냈습니다. 자리를 깔고 누워서 4천 원을 투자해서 장만한 풍선 배개를 입으로 불어서 부풀리거나 계곡물에서 튜브 타고 놀던 아이들이 구경을 하더군요. 어른들의 장난감이 된지 궁금한 듯이 말합니다.

'투자전쟁'은 '헤지펀드 사람들의 영광과 좌절'이라는 설명이 제목 위에 붙어 있습니다. 헤지펀드는 1990년대에 한껏 부풀었던 거품이 꺼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지요. 헤지펀드 운용자들은 순진한 투자자를 약탈하는 해적떼라는 말과 함께 탐욕스럽고 사악한 돼지들이라고 몰리기도 했습니다.

헤지펀드(hedge funds)는 '100명 미만의 소수투자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헤지 등 각종 투자기법을 이용하여 자금을 운용한 뒤 투자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사모(私募) 파트너십(partnership)을 말한다'고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본래 헤지펀드는 정부의 규제와 세금에 대해서 헤지(올타리)를 치고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정적 투자를 중시했지만 최근에는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자산뿐 아니라 원유, 귀금속 등 실물자산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헤지펀드를 만들었다



헤지펀드가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두드러지면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영광과 좌절 또한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집중력과 긴장, 불안, 약점 또한 한하게 드러나게 마련이고 희열과 고뇌, 절망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데 이렇게 재미있고 화려한 세계가 소설로 나오지 않았다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존재가치가 오로지 수익률로만 표현되는 세계에서 부나부처럼 바빠 돌아다니는 전문투자자들은 사실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자가를 비행기와 요트, 전용 해수욕장만 없다면 부러울 게 전혀 없었습니다.

당신의 창조물 바턴 빅스는 모건 스탠리에서만 30년을 일했고 미국 최고의 투자전략가로 선정된 바도 있으며 지금은 10억 달러 규모의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군요. 한 마디로 최고의 전문가인데 500 페이지나 되는 책이 전혀 지루하지 않은 까닭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몇몇 전문용어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 책에서 몇몇 흥미로운 처세술을 건지는 건 어렵지 않고 20장의 '월스트리트 괴담'은 환상소설로 추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산전·수전·공공전을 벌이며 날아다니는 판인데 재미가 없을 수가 없지요. 빅스는 책의 시작과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좌절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전문투자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롭고 소중한 돈을 벌 수 있는 도전을 가지기 충분히 있는 직업이다. 헤지펀드 운용자가 되기는 어렵다. 헤지펀드 운용자를 활용하는 일도 쉽지 않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주어, 당신은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헤지펀드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헤지펀드에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성석제 <소설가>

Real estate advertisement containing multiple sections for different types of properties and services. Includes '대인동상일부동산', '유성공인중개사', '인애공인중개사', '동부부동산건설(주)', '하이테크 건설링', and '전원공인중개사'. Each section lists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contact information, and specific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like location, size, and price.